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3 권 10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성체조배: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이규용 요한 (661-619-1081)

미 사 성 가	입 당 ()	봉 헌 ()	성 체 ()	파 견 ()
<p>▶제 1 독서</p> <p><b>화답송</b></p> <p>◎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p> <p>○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p> <p>○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p> <p>○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p>	<p>여호 5,9 ጳ.10-12</p>	<p>▶제 2 독서</p> <p><b>복음환호송</b></p> <p>◎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p> <p>○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p> <p>▶복음</p> <p><b>영성체송</b></p> <p>아들아, 네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p>	<p>2 코린 5,17-21</p> <p>루카 15,1-3.11 ጳ-32</p>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3월 10일	이 클라라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3월 17일	이 마틸다	이 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3월 24일	이 클라라	김 헬레나	성인복사
3월 31일	이 마틸다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3월 3일	\$ 651.00	\$75.00	\$ 1,330.00

\*2차 봉헌은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에 있습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길' 전례 (한국어):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십자가의 길' 한국어 전례가 있습니다. 사순시기는 오는 재의 수요일(2/13)부터 부활대축일 (3/31) 이전까지 기간입니다.

Gospel Competition: 신약 4 대복음 필사 대회

성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산클레멘테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Gospel Competition (4 대복음 필사)' 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부사항 문의: 성당사무실(661-871-9190).



부활 백합 봉헌

부활절 제단을 장식하기 위해, 백합을 봉헌하실 분은 '백합 화분' 또는 현금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성주간 미사 및 전례시간 안내

성목요일(3/28): 저녁 6시 (미사 및 성체조배)  
 성금요일(3/29): 정오(십자가의 길), 오후 3시(Passion of the Lord)  
 부활 성야 미사(3/30): 저녁 8시  
 부활대축일 미사(3/31): 오전 8시(한국어)

공동체 임원회의: 3/12(화) 오후 7시

3월 한인 공동체 임원회의는 오는 3월 12일 저녁 7시에 친교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성체조배: 3/14 (목)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는 매월 둘째 목요일 저녁 6시 30분('6시 저녁미사' 후)에 있습니다.

기도회 모임: 3/14 (목)

나눔주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받는 것이었다.'

소공동체 모임: 3/17 (주일) 오전 8시 미사 후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매달 셋째 주, 주일미사 후에 있습니다.

피정 및 판공성사: 3/17 (주일) 오후 4시

예수님의 부활(3/31)을 경건하게 맞이하기 위한, 판공성사 및 피정강의가 3월 17일(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인공동체를 위해, LA 교구 성 아그네스 성당에서 최대제 로베르토 신부님께서 방문해주실 예정입니다.

한인공동체 성당청소: 3/29(토) 오후 3시

매월 5번째 토요일 오후 3시

말씀의 이삭

루르드의 선물

황미나아가네 만화가

어릴 때부터 류머티즘을 앓았습니다. 그것이 허리까지 번져 누워서 몇달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면서 '설마 이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겠지.'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살짝 들어보았지만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고 씹지도 못하면서 눕고 회복하기를 몇 년간 반복하다가, 기어이 허리는 망가져 버렸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아 구부린 채 살아야 했고, 척추뼈는 안으로 밀려들어갔습니다. 너무 아파서 걸을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만화는 그려야 했습니다. 동생이 저를 의자에 앉혀 화판을 걸쳐주면 저는 만화를 그렸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으면 동생이 저를 일으켜 손을 잡아 주어야만 겨우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니 저는 이 통증을 운명이라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성 바오로 수도회에서 '내 친구들'이라는 만화잡지를 내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수사님께서 루르드에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치는 광선이 있었습니다.

'루르드의 성수를 바르면 낫는다.'

그 자리에서 저는 수사님께 성수를 달라고 졸랐습니다. 수사님은 손가락만한 성모님 모양의 병에 딱 세 손가락 정도의 성수를 담아 주었습니다. 그 성수를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어머니께서 성수를 뿌린 거즈를 제 허리에 대 주었습니다. 성수를 뿌린 거즈는 그 순간 뜨거워졌고, 참을 수 없다 싶으면 다시 식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뜨거워지기를 반복하면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았습니다.

한시간 쯤 반복되다가 통증은 허리에서 다리를 타고 발가락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고, 걸어보면서 다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 번은 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권유대로 저는 루르드의 성수를 묻힌 거즈를 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훗날 병원에서는 당시의 제 증세를 듣고, 그것은 류머티즘이 아니고, 강직성 척추염으로 국가보조까지 받는 드문 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아버린 제 허리도 다시 진단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아프다가 갑자기 나았다는 기억만 남아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까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적은 처음이었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저는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믿으려 했던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루르드의 선물을 받은 후, 저는 그토록 온전한 믿음을 다시 가져 본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감사한 가뭇입니다. 주님께 받을 것이 있을 때만 믿고, 다른 때엔 모든 것이 다 내 힘이라고 착각하고 사니 말입니다.

<서울주보에서>